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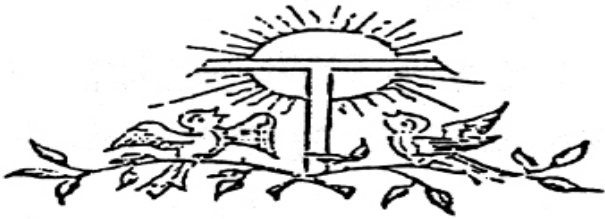
재속 프란치스코회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하느님을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

제 07-05호 2007년 5월 20일 발행

St. Bonaventure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월례회: 매월 셋째 일요일 1:30 PM 반모임: 매월 넷째 일요일 12:30 PM 웹사이트: kr.blog.yahoo.com/bonasfo
장소: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모든 좋은 선물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1고린 12,3).’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로마 3,12:1-2).’

사부님께서 이 두가지 성서 구절을 인용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든 선한 일, 모든 능력은 바로 삼위이신 하느님의 업적이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이 하신 그 모든 좋은 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느님의 선물로 돌리셨던 사부님은 유언에서도 같은 표현을 되풀이하여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나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 생활을 시작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 주님 친히 나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셨고... 주님이 성당에 대한 크나 큰 신앙심을 주셨기에... 사제들에 대한 큰 신앙심을 주셨고 또한 지금도 주시기에... 주님이 몇몇 형제들을 나에게 주신후,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전혀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유언 1-14).’

우리는 사부님께서 ‘주님이 나에게 해주셨다’는 표현을 되풀이하여 사용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부님은 반대로 주님이 나에게 해주셨고, 형제들을 주셨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 영적 권고 묵상집 권고8 중에서

성모성월의 유래와 의미

5월과 성모를 처음으로 연결시킨 사람은 카스티야(스페인의 중부의 옛 왕국)의 왕 알폰소 10세(1221~1284). 그는 5월이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성모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풍요로움을 연결, 5월 한달간 특별히 마리아에 기도하자고 권고했다. 이때부터 5월을 성모의 달로 기념하는 전통이 서방교회내에 차츰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성모 성월이 구체화된 것은 17 세기 말. 1677년 피렌체 부근의 도미니코회 수련원에 성모를 특별히 공경하는 단체가 생겨 5월을 성모께 봉헌하는 축제를 마련, ‘성모호칭기도’를 바치고, 마리아에게 장미 화관을 봉헌하는 등 성모 신심을 고취시켰다.

이런 형식의 성모신심 행사는 그 뒤 전 유럽 교회로 퍼져 나갔고, 여러 신학자들이 ‘성모성월’이라는 책을 내놓으면서 이를 정착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 특히 교황 비오 9세가 1854년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선포한 후 성모 신심은 절정에 달했으며, 성모 성월 행사는 공적으로 거행되기 시작했다.

교회가 성모성월을 제정한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는 성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다. 또 성모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가 보여준 하느님께 대한 순명과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평생을 하느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늘나라에 불러 올라간 성모는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뵙기를 염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성모의 삶을 두고 “하느님과 깊은 일치와 전 인류의 깊은 일치를 표시하고 이루어 주는 표지요 도구”(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헌장 1항)인 교회의 전형이 된다고 가르친다.

“성령 강림 대축일”

나기정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더라'고 하셨다. 존재하는 것은 다 선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이므로 다 좋은 것이다. 그러면 악은 무엇인가? 악은 선이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이다.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결핍되면 그것이 악이다. 하느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더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빛은 선한 것이다. 그런데 빛이 부족하고 모자라면 어둠이요, 그것이 악이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다. 선은 늘 악을 이긴다. 그래서 예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하신 것이다. 그래야 악이 사라진다.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부활 대축일 성야 때 '빛의 예식'을 거행하였다. 예수께서 우리의 빛이시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이다. 죽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죽음을 생명의 끝이요 종말로 이해하던 인류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새 생명을 보여주신 것이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 것이다. 죽음에 대한 새 생명의 승리가 그리스도 부활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 그 빛으로부터 우리는 빛을 나누어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세례를 기억하며 세례수(성수)를 축복하고 세례때 했던 서약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기 때문이다.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 그 부활시기를 지내고 있다. 새 생명에 대한 기쁨과 그 기쁨이 가져다주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지내고 있다. 부활시기는 50일간 지속된다. 40일째에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내고 50일째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거행한다. 성령의 강림은 그리스도 부활의 완성이며 종결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아라'고 하셨다(요한 20,22 참조). 곧 부활의 새 생명은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으로써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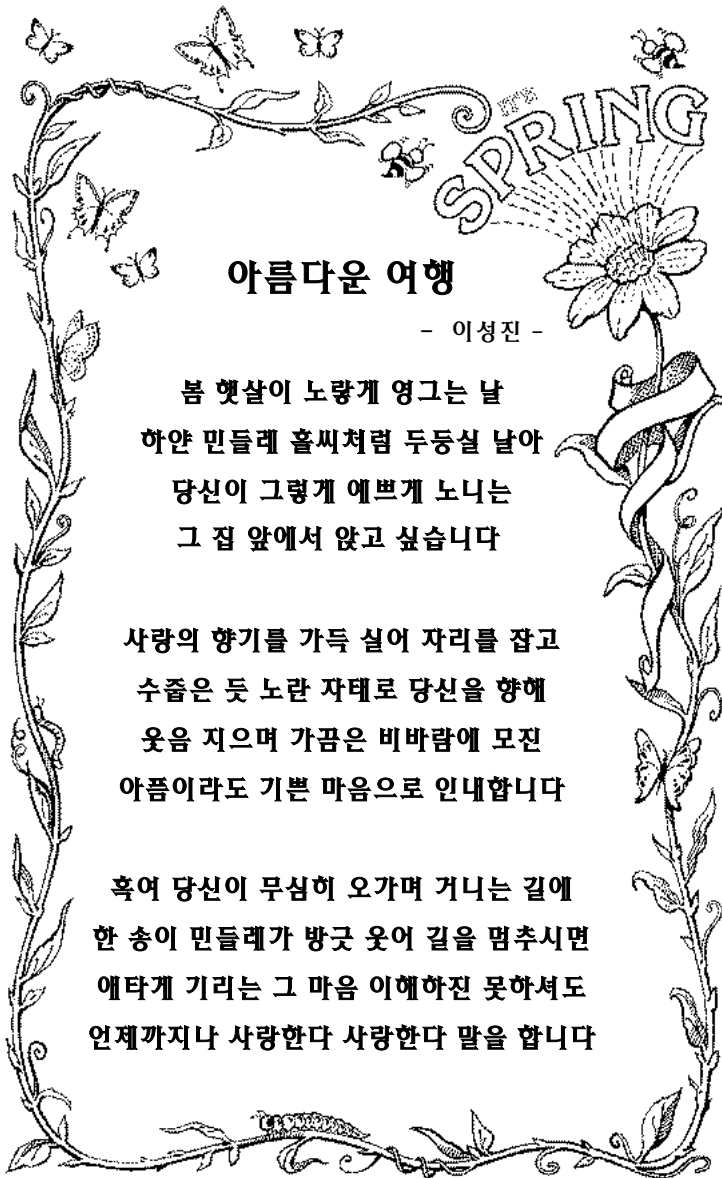


그렇다면, 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예수 부활 대축일 다음 50일째에 지내게 되었는가? 그것은 오랜 유대 전통 축제인 과월절과 오순절과 무관하지 않다. 과월절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과 직접 관련된다. 예수께서는 과월절 전날 돌아가셨고(마르 15,42), 과월절 다음날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마르 16,1). 그리스도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과 일치한다. 이런 밀접한 관계때문에 예수 부활 대축일과 성령 강림 대축일은 유대교의 과월절과 오순절에 맞추어 날짜가 정해진 것이다.

또 성령 강림 축제로 마감하는 부활시기 50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구약성서에 따르면(레위 25, 10 참조), 매 7년의 주기 다음, 곧 매번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 하여 모든 죄가 사해지고 노예들을 해방하였다. 그래서 50이라는 숫자는 '죄의 용서'를 의미하게 된 것이다. 교회는 유대인의 '오순절 축제'와 '죄의 용서'를 서로 연결하여 이해하였다. 또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7을 스스로 곱한 숫자의 다음날이 50일째가 되는 날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미래의 여덟째날'을 의미하였다. 이렇게 이 50일의 축제는 성령 강림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교적 해석과 의미가 부여되어 자리를 잡은 것이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50일의 기간과 함께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 '부활의 새 생명'의 의미를 내포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성령의 강림은 부활의 마지막 사건이다. 성령 강림 대축일로 부활시기 50일이 막을 내린다. 성령 강림의 의미는 '죄의 용서'와 '부활로 인한 새 생명의 활동'이라 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의 활동이 성령이시다.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 하느님의 능력이 성령이시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그 결실을 맺는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결실이다.

(3면에계속)



아름다운 여행

- 이성진 -

봄 햇살이 노랑게 영그는 날
하얀 민들레 흩날처럼 두둥실 날아
당신이 그렇게 예쁘게 노니는
그 집 앞에서 앉고 싶습니다

사랑의 향기를 가득 실어 자리를 잡고
수줍은 듯 노란 자태로 당신을 향해
웃음 지으며 가끔은 비바람에 모진
아픔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인내합니다

혹여 당신이 무심히 오가며 거니는 길에
한 송이 민들레가 방긋 웃어 길을 멈추시면
애타게 기리는 그 마음 이해하진 못하셔도
언제까지나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하지만,
종종 잘못을 하며 죄를 짓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새롭게 고쳐
다시 살아가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 한다.

우리는 길을 걷다가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 앉지 않는다.

이내 자리를 털고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간다.

넘어진 것 자체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을 비판하고 아예 주저앉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더 큰 불행이다.

어떤 이는 신앙인들을 가리켜
“노력하는 죄인”이라 부른다.

사실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때이다.

-김정수신부 글 중에서-

성령 강림 대축일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
하시고 보시니 좋다고 하셨는데, 인간은 교만의
'죄'로 인해 '분열'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부활하셨으며, 성령을 보내
주셨다. 바벨탑을 쌓았던 교만의 죄로 언어가
갈라지는 분열이 왔다면, 성령의 오심으로 그
죄가 용서받으며 자기 말로 알아듣는 '일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사도 2,1-11 참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한마음'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다. 형제들과 한마음 한뜻,
주님과 한마음 한뜻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성령
강림 대축일의 의미이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 세례와 견진을 통
해 이미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화해의 성사인
고해성사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서 활동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한마음이 되게 만드신다.

성령 강림을 맞아 우리는 성령께서 활동하실
자리를 내어드리자. 내 마음이 자기 주장, 고집,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영께서 활동하실 수
없다. 마음을 비우고 성령께로, 주님께로 마음을
열어보자. 그러면 주님께서 활동하시고 이끄
시는 대로 우리를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결실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보나벤투라 형제회 소식난

✦ 메모리알데이 캠핑(웨난도)에 가시는 분들은 26일(토) 12시까지 성당에 오시기 바랍니다.

✦ 우리형제회 서약 피정 날짜가 6월 24일(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 7시까지 성당에 모여서 갈 예정입니다. 피정비 \$30

장소: Priestfield Pastoral Center
4030 Middleway Pike
Kearneysville, WV 25430

✦ 8월부터 새 지원반 교육이 실시되겠습니다. 주위에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성소가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을 보시면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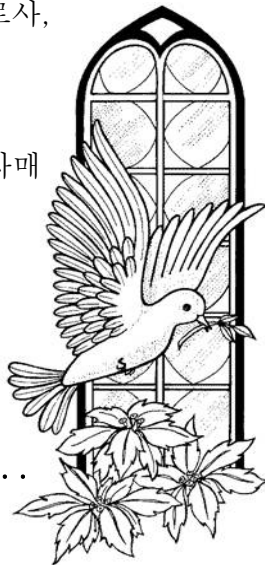
✦ 지원반 교재로 사용하는 요르겐센, 와서 보라 (Come and See), 아씨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새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1년 동안 무료로 빌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책을 형제회에 도네이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월29일 홀리네임칼리지에서 수도 신부님들과 수사님들께 저녁식사 대접을 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분들: 김젼마, 박세실리아, 조로사, 이말가리다, 김아가다, 김미경, 한테레사

✦ 5월12일 김병두 신부님께서 우리 형제회를 방문하셨습니다. 한테레사 자매댁에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친교와 미사가 있었습니다.

기도 중 기억합시다 ...

- ✦ 6월 총선을 위해 ...
- ✦ 7월에 서약/입회하실 분들을 위해 ...
- ✦ 보나벤투라 형제회와 회원 가족들을 위해 ...
- ✦ 세계의 평화를 위해 ...



5월 월례회 시간표

1:00 PM - 다과
1:30 PM - 양성 교육
3:00 PM - 월례회/신부님 강론
미사 / 공지사항

✦ 미사성가: 지침서 ✦

입당: 13번 주를 찬미하여라
봉헌: 32번 평화를 주옵소서
성체: 42번 천사의 양식
마침: 85번 거룩하다 부활이여

제1독서: 막요한 제2독서: 막루시아

미사해설: 남야고보

본명축일을 축하합니다

5월 14일: 김영자 젼마

5월 16일: 이경숙 말가리다

간식담당

5월: 강말가리다, 강요한, 강스텔라

6월: 이아모스, 김글라라, 허세라피나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회장: 한기남 703-425-9445 man5ki@yahoo.co.kr
부회장: 이장훈 703-509-1388
서기: 김미경 703-680-0274 talmadge01@msn.com

회계: 조순우 703-759-9429 swcsfo@yahoo.com
양성: 조은자 703-250-1658 chosonyoo@hanmail.net
영적보조: 김태승 안티모 OFM kantimo@hotmail.com